

# 공기청정기, 작은 용량 방마다 사용 '효과'

### 미세먼지 극성...가전 바이어가 알려주는 공기 청정 팁

롯데백화점 MD, 이동편한 공기청정기·의류관리기 추천  
세탁기로 이불 먼지 제거·가스레인지 보다 전기레인지 사용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에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전업계도 경쟁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전 바이어가 직접 집안 실내 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전제품의 추가기능, 구입 조건 등을 소개했다.

◇공기청정기-용량보다 여러 개 이용=이날 롯데백화점 호남총청지역 MD(기획상품)팀 유지원 치프바이어(Chief Buyer)에 따르면 용량이 큰 제품 한 대를 이용하는 것보다 용량이 적더라도 여러 대를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용량이 클수록 공기정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방이 여러 개로 나뉜 가정집 특성상 용량이 큰 제품 하나를 사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작은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각 방마다 놓고 사용하는 게 좋고, 비용과 관리에 부담이 된다면 이동이 편한 바퀴가 장착된 제품을 추천했다.

또 이동이 불편하지만 정화된 공기를 구석구석 보내주는 클린부스터 기능의 공기청정기와 350도로 공기를 보내주는 공기청정기는 상대적으로 먼 공간까지 정화된 공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할때 우선 청정 공기 공급률을 의미하는 'CADR' 지표가 높은 제품을 구입 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내부 필터 관리가 안 될 경우 오히려 실내 공기를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불 속 먼지 '이불 털기' 기능 활용으로=유 바이어는 이불 속 먼지를 집안의 공기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또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고, 오히려 외부 먼지가 더 불거나 털어낸 먼지가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최근 출시된 세탁기나 건조기 기능 중 '이불 털기'를 이용할 경우 고온 살균으로 먼지를 털어내 먼지제거는 물론, 보송하게 이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온으로 일부 이불 원단이 손상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단시간에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선 청소기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최근 각 제조사들의 주력 무선 청소기는 침구 브러시를 제공하고 있어 이불에 붙어있는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매일 입는 옷-의류관리기로=외출 시 옷에 묻은 먼지 역시 집안 실내 공기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그렇다고 매일 세탁하거나 드라이를 맡기기에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바쁜 직장인과 매일 교복을 입어야 하는 중·고생을 둔 가정에는 의류관리기를 추천했다. 의류관리기의 대표격인 '스타일러'는 '무병행어'와 '스팀살균' 기능을 갖췄다.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일산화



롯데백화점 호남총청지역 MD팀 유지원 치프바이어가 공기청정기를 소개하고 있다.

탄소 줄이자=주방에서는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는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레인지후드와 공기청정기를 주위에 틀어 놓는 것도 좋지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인덕션은 전용용기를 사용할 때만 가열이 되고, 그 외에는 가열이 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 인덕션은 수입브랜드가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최근 국내 브랜드들도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유지원 바이어는 "가전 제품을 통해 내 집 공기를 스마트하게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잦은 환기를 통해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 시키는 것"이라며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실내 공기질 악화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2일부터 공기청정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는 특별전을 진행한다. 위닉스, 다이슨, 에어퓨라 등 세계 유명 브랜드의 공기청정기를 1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나보다 반려동물...지갑 여는 펫팸족 증가

### 광주 이마트 매출 21% 증가 중·연령 등 맞춤형 제품 출시

반려동물 용품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연령별, 중별 등 맞춤형 제품까지 출시되는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20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에서 판매된 반려동물 관련 상품 매출은 20.1% 신장했다.

사료와 간식류 등 식품은 32.1% 매출이 늘었고, 패드와 샴푸 등 관련 상품 역시 2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와 판매하는 제품의 수도 지난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이마트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령별·영양별·종별 식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연령에 맞는 성장속도와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생후 3-12개월(피피), 1-6년(어덜트), 6년 이상(시니어)로 구분해 면역력 향상이나 칼슘 강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추세다.

또 세척용품에서도 피부타입에 따라 부드럽고 순한 피부를 위한 식물성 오일과 알로에·오트밀 등 천연재료제품, 어린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저자극성 전용샴푸를 넘어 비듬과 가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전용약용샴푸, 피부가 민감한 말티즈·시츄 등을 위한 전용샴푸&린스까지 나오고 있다.

장원중이마트 상무점장은 "애완동물은 더 이상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친구와 동반자로 변화했다"며 "관련상품들도 재료와 성분 등 기능뿐 아니라 패션과 디자인까지 고려한 맞춤형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세븐일레븐, 여수 '새꼬막' 활용 이색 먹거리 출시

### 비빔밥 등 다음달까지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20일 여수의 특산물인 새꼬막을 활용한 '꼬막비빔밥', '꼬막비빔 삼각김밥'을 출시하고 다음달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꼬막비빔밥은 여수산 새꼬막과 각종 야채를 양념장에 비벼 한 끼 식사로 즐길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꼬막비빔 삼각김밥은 간장 비빔밥에 여수산 새꼬막을



통째로 넣어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고 제품을 소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CJ제일제당 이색홍보 눈길 "와인 지금 구입하세요"... 롯데마트, 연중 최저가 '와인장터' 열어

### 보약햇반 등 가상제품 선보여

CJ제일제당은 20일 햇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약햇반세트'와 '햇반선물세트' 등 가상제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상 홍보용 이미지만 있고 실제 판매되지는 않는다.

이번 홍보는 SNS 활동이 많은 청소년 등 미래 잠재 고객이 햇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매월 한 가지씩 햇반 가상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소비자반응이 좋은 제품은 상품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27일까지 70% 할인

롯데마트 상무점과 수완점은 21일부터 27일까지 와인을 최대 7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와인 장터'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가격대는 5000원부터 수십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죽기 전 마셔야 할 와인'으로 알려진 '캔달잭스 빈트너 샤도네이'나 '샤도 팔머(2006년)',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최고급 와인인 '샤도 캉뜨메틀르(2013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롯데마트는 포장재나 상표가 약간 손상됐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와인들도 5000~9000원 균일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신평, 홈플러스스 단기 신용등급 하향

### 리츠 상장계획 무산 등 'A2+'서 'A2'로 변경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신평은 "소비 부진과 대형마트의 열매 매력도 하락으로 매출 정체 혹은 역성장 추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매출충이익률 하락과 인건비·임차료 등 비용부담 상승으로 수익창출력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우호적인 영업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온라인 광고비 증가, 카드수수료율 인상 가능성 등 비용 증가 요인이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신평은 "매각 후 재입차(S&LB),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 규모 감축에도 수익창출력 저하로 계열 전반의 재무커버리지 지표가 저하되고 있으며 대규모 리츠 상장계획 무산으로 재무적 가변성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QR code and text: 네이버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짝이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 1588-2219